



**남원의료원, 제92회 춘향제 지원 펼쳐**

남원의료원은 4일~8일까지 펼쳐진 제92회 춘향제 행사에서 의료지원반을 편성에 원활한 행사진행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활동을 펼쳐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5일간 진행된 의료지원반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담,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구급 물품, 약품, 구급 장비, 구급차 지원 및 병원이용 전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등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남원의료원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삶 영위 및 남원의료원 인지도를 향상에 나서고 있다.

박주영 원장은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성수면, 둔남천변 아름다운 산책로 꽃길 조성**

성수면이 지난 8일 '겉고 싶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면 소재지 둔남천변 제방도로 약 4km 구간에 급계곡, 구절초를 각 9,000주씩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성수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삭막한 하천제방 대신 아름다운 꽃길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규 성수면장은 "꽃 묘목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관리를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산책로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교육청 오다경 사무관 개인전 창조나래서 열리**

도교육청 총무과 오다경(민원담당) 사무관의 두 번째 개인전이 6월 10일까지 창조나래 2~3층 공간에서 열린다.

나무, 흙에 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나무 사진 48점이 선보인다.

오 사무관에 따르면 여러 나무들이 숲을 이뤄 계절에 따라 빛깔을 바꾸며 생명을, 삶을 노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지리산 피아골 감재 양버들나무, 남원 서어나무 숲 길에 나트나무, 인제 자작나무숲, 제주 절물류인림 삼나무 숲 서늘로 나무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시련을 견디고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힘내라는 응원을 전한다.

오 사무관은 "삶에 잠시 힘표가 필요할 때 나무를 찾아 서터를 누르며 말을 걸면 나무가 나를 봐, 나를 도와 이렇게 견디는 걸 관망야 힘내 잘될거야 하고 응원을 보내는 것 같다"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2022년도 옷칠·같이 교육 개강**

남원시는 옷칠·같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 남원시 옷칠·같이교육을 지난 9일 개강할 옷칠공예교육센터에서 개강했다.

이 교육은 남원시가 옷칠목공예문화 보급과 전통문화 기술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9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육 희망자 4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에서는 2개 분야(옷칠, 같이), 5개반(옷칠 초급·중급·고급반/같이 초급·중급반)으로 구성되며, 옷칠 초급반에서는 목질별을, 중급반에서는 교칠 및 채화기법 등을 고급에서는 나전 및 난각 과정 등을 교육하고, 같이 초급과 중급반에서는 목선반의 활용과 응용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강사진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옷칠 고급반은 도무형문화재 옷칠장 박강용 선생, 같이반은 대한예술명인 이진주 선생의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류창 기업지원과장은 "매년 진행되는 옷칠·같이 교육이 전문 공예가 배출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옷칠공예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애인의 건강한 체육활동 적극 지원”**

**전주시설공단·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협약**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과 전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승수)는 10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인력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장애인 인권과 권리 증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석원 공단 경영부장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어울람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단



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지사협, 생신상차림·사랑 사랑 밑반찬 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10일 동 주민센터에서 홀로어르신 생신상차림 행사와 저소득 세대들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 사랑 밑반찬 행사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 협의회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추천 가정에 배달을 하며 안부도 묻고 식사도 챙겨드린다.

협의체는 또한 매일 생신을 맞이한 홀로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케이크와 생신상 차림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오 위원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밑반찬을 홀로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시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위한 경로당 방문관리 재개**

김제시보건소(소장 송윤주)는 5월부터 거리두기 해제로 경로당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오던 혈당·혈당 검사, 영양상담 등을 포함한 방문보건서비스를 경로당으로 찾아가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자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적인 해제로 따라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보건 서비스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보건팀은 기초 조사표, 기초 건강 검진을 통해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하고, 군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실시, 체험을 통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제공, 색칠하기를 통한 영양 교육,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 및 테이핑, 영양제 및 철분제 지급을 통한 허약노인 관리 등 경로당 이용 주민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혁신동, 반려식물 원예치료 행복고실 성료**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동장 이성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희곤)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혁신동 코로나19 극복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특화프로그램은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주민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2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주민 50여 명은 각자의 소망을 담아 직접 반려식물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김모씨는 "식물을 보며 내 마음도 치유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우울했던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희곤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이번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마음의 힐링과 치유에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4동, 어르신 대상 내가 그린(green) 원예 진행**

전주시 효자4동(동장 박정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남영)는 10일 관내 위치한 아침정원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그린(green) 원예' 치료사업을 실시했다.

원예치료 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사업으로, 꽃과 식물을 직접 가꾸는 원예와 꽃을 이용한 작품 활동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어르신들의 운동능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년기 우울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서로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동네복지 공동체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매 회마다 10명의 관내 독거어르신이 참여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우리 쌀 가공기술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현대인의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통해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다양한 베이킹 기술 습득을 위한 '한국형 디지털 마스터 자격증 과정' 교육에 5월 2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방식의 쌀 베이킹 기본과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요거트쌀스콘, 사브레브라우니, 글라스쿠퍼운드, 장미사파케이크, 과일칩롤타르트 이론 및 실습 6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자부담 20만원(재료비, 자격검정료 등)이 소요되며 기본 제빵기, 교재비, 강사비 등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만큼 관심 있는 남원시민의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식중독 예방·당·나트륨 줄이기 홍보**

장수군은 10일 장수시장 및 관내 식당을 방문해 이른 더위로 높아지는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자 식중독 예방 및 당·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실시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는 환경위생과 직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시장과 관내 식당들을 찾아 식중독 예방 6대 요령을 홍보하고 조리시설 내 위생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고무장갑, 손소독제, 수저지 등 홍보물품을 직접 배부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요령은 ▲손씻기 ▲의식하기 ▲세척·소독하기 ▲구분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끓여먹기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당·나트륨 줄이기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해 당·나트륨 줄인 건강한 식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철 환경위생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고 있다"며 "식단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요령 등을 잘 숙지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곽노태 기자

**임실 청웅면, 주요 공원 환경정비 실시**

청웅면 생활개선회원 5명과 청웅면 직원 5명이 지난 9일 청웅면 주요 공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환경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성 및 접근성 등을 파악하여 3·1 민세운동 문화센터 및 양지공원 일대를 3구역으로 구분하여 화단 풀베기 및 잡목 제거 등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자 및 방문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규영 청웅면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가까워지는 만큼 주민에게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경해선전복신문 광고경영국장 모친상= 빈소: 전주예수병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지: 전주송화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